

정우경 작품설명서

WORK & PRACTICE 시간을 엮어 생명의 에너지를 그리다

내가 뜨개를 그리기 시작한 것은 어머니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다. 실 한 올 한 올을 엮는 느린 손의 움직임 속에는 기다림과 정성, 돌봄과 사랑이 있다. 뜨개는 단순한 소재가 아니라 내 그림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되었다.

나는 실제 실을 사용하지 않는다. 물감과 아주 가는 붓으로 캔버스 위에 작은 코를 하나씩 그린다. 같은 동작을 반복하지만 완전히 똑같은 선은 없다. 손의 힘과 호흡, 물감의 농도와 붓의 움직임에 따라 미세한 차이가 생긴다. 기계로 찍어낸 반복이 아니라 살아 있는 몸에서 나오는 반복이다.

반복은 시간이다

한 작품에는 수천 번, 수만 번의 붓질이 필요하다.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 큰 작품은 몇 해가 걸리기도 한다. 반복되는 붓질은 내게 노동이면서 수행이고, 놀이이자 시간을 건디는 방법이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에 걸쳐 완성한 첫 번째 9m 대작 「대지」(144.5 × 900.0cm)는 이러한 시간의 축적을 극단적인 규모로 보여준다. 한 코의 반복이 9m의 화면으로 확장되면서 회화의 크기는 작가가 견디고 살아낸 시간의 크기가 된다.

「과거 현재 그리고...」와 관계

말줄임표에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과 계속 이어질 삶을 남겨두었다. 화면에서도 아래의 선은 새 선에 가려질 뿐 사라지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층까지 작품의 일부다.

‘그리고’에는 ‘과거, 현재, 그리고...’라는 접속의 의미와 ‘과거와 현재를 그린다’는 회화 행위의 의미가 함께 있다. 한 코가 다른 코와 연결되어야 형태가 되듯 사람의 삶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작품 속 선은 시간의 흔적이면서 관계의 모습이다.

대지, 꽃, 생명의 에너지

「대지」에서 대지는 모든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자리다.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만난 ‘대지에 충실하라’라는 문장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다시 바라보게 했다.

꽃 역시 탄생과 성장, 소멸과 다시 시작되는 생명의 흐름을 보여준다. 「에너지」에서는 꽃과 색, 반복되는 선을 통해 서로 다른 생명이 만나 만들어내는 힘을 표현한다.

개인의 기억에서 사회의 기억으로

작품에는 인물과 자연, 화폐와 문자, 도시와 건축, 사회적 사건이 등장한다. 개인의 기억은 사회와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2020년 팬데믹에는 마스크를 쓴 딸과 어린 손자의 모습을 화면에 담았다. 어린아이마저 마스크를 써야 했던 낯선 현실은 한 가족의 기억인 동시에, 한 시대를 살아낸 우리 모두의 기억이었다.

2026년 〈Past, Present and... (The Pain of the Himalayas)〉에서는 네팔 대홍수의 아픔을 반복되는 푸른 코와 소용돌이로 표현했다. ‘뜨개는 사랑이다’는 아름다운 것만을 그린다는 뜻이 아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과 자연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의미까지 확장된다.

평면에서 공간으로

최근에는 캔버스를 접고 구부리거나 부풀리고 여러 화면 사이에 공간을 만든다. 2025년 대전시립미술관 수상작가전에서는 관람객이 작품 사이를 걸으며 화면을 몸으로 경험하도록 구성했다.

나는 이를 ‘회화의 멀티플렉스’라고 부른다. 한 코의 붓질이 화면으로 자라고, 화면이 공간으로 이어지며, 그 공간이 다시 관람자의 몸과 만난다. 결국 내 작업은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해 그 사랑이 다른 존재와 연결되고 생명의 힘이 되는 과정을 찾아가는 일이다.